

풀어 주고 관리하라

본 문 잠언 27장 23절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베드로후서 3장 10-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온다.” 했다. <주>가 ‘도적’ 같이 온다고 비유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가령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깨어 있으면 도둑을 안 맞게 되고,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주가 올 때>도 ‘신앙’에 깨어 있어야 제대로 맞게 되고,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2.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말씀에 “그 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니,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풀고 “주가 오면 천지가 개벽하겠다.” 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씀>은 “신약의 하늘이 떠나가고, 새로운 세계, 성약의 하늘이 온다.” 함이다.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어진다. 곧 뜨거운 말씀, 지혜의 말씀, 시대 말씀으로 풀어진다.” 함이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진리가 드러나고, 악한 자가 드러나고, 성경을 그릇되게 풀 자들이 드러난다.” 함이다.
3. <풀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끄르다. 풀어 놓는다.” 는 말이다.
4. 풀어 봤으면, 그다음에는 ‘관리’ 해야 된다.
5. <생명>도 풀어 봤으면, 그다음에는 ‘관리’ 를 해야 된다. 가령 어린 아이를 풀어 놓았으면, 주변에 화로도 있고 위험한 물건이

있으니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생명도 풀어 놔
으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된다.

6. 잠언서 27장 23절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하신 말씀은 곧, <생명들을 관리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한 말씀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라는 말씀>이다.
7.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진다.
8. 하나님은 특히 ‘메시아’ 를 쓰고 나타나시어 그를 통해 풀어 놓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9. 지난날 섭리 역사를 보면, ‘풀어 주는 역사, 관리의 역사’ 였다.
10. 풀어 주지 않으면 꿈쩍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고, 풀어 주면 즉시 뛰고 달리며 행한다.
11. <묶여 있는 사람, 얹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 주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
12. <자기>도 ‘자기’ 가 풀어 주고 관리해 줘야 된다. <생활의 풀기>와 <생활의 관리>다.
13. <구시대 종교인들>은 ‘성경 풀기’ 를 못해서 새 시대를 못 맞았다. 성경을 풀지 못하니, 구시대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다. 이 시대를 보고 깨달아라.

14. 항상 <풀어지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5.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뭉치면, 즉시 뭉친 근육을 풀어 주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경기를 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신앙의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풀고, ‘자기 관리’와 ‘상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
16. 먼저는 <풀어 주기>다. 그다음에 <관리>다.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
17. <관리>는 ‘단장’이다. <시대 신부들>은 ‘단장’ 함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18. <주>는 ‘만사의 답’이다. 고로 그가 오면 <성경>도 풀어 지고, <인생 문제>도 풀어 지고, <병든 자>와 <아픈 자>도 풀어진다.
19. <문제>를 못 풀면, 머리도 아프고 관리도 안 되고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터져버린다.
20. <풀어 주기>와 <관리>다.
21. <구시대인들>은 성경을 풀지 못해서 아직도 새 시대를 맞지 못하고 있다. <아는 자들>이 풀어 주고, 풀어 줬으면 관리해 줘야 된다.

22. <차원>을 높이려면, ‘풀어 주기’와 ‘관리’다.
23.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풀어 주기>와 <관리>로 모든 생명들이 남아지지 않았느냐.
24. <해 줄 것을 해 주고,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관리’요, ‘문제의 답’이다.
25. 개인도, 회사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 ‘풀어 주기’다. ‘관리하기’다.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이 이뤄진다.
26. 안 풀어지면, 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난다.
27. 알아야, 풀어주고 관리해 준다.
28. 풀어 주고 관리해 주면, ‘결실’을 맺게 된다. <보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희망을 갖고 풀어 주고 관리하여라.
29. <성약 역사>는 ‘풀어 주는 역사, 관리의 역사’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30. 먼저는 <자기>를 풀어 주고, 관리하기다. 그다음에 <서로 풀어 주기>, <서로 관리>다. 관리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관리해 줘야 된다.
31. <목회자들>은 항상 교인들 ‘풀어 주기’와 ‘관리’다. 이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교회 운영의 핵심’이다.

32. 하나님도 항상 ‘풀어 주기’와 ‘관리’로 역사를 펴셨다.

33. <농사짓는 자>는 ‘곡식 관리’다. 그리함으로 <가을>을 맞게 된다.

34. 세상만사를 봐도 ‘풀어 주기’와 ‘관리’다. 풀어 주지 않으면, 거기 매어 있다.

35. 매여 있는 끈을 풀어줘라.

36.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너희의 매여 있는 끈’을 풀어 주리라.” 하셨다. <매여 있는 끈>이란, ‘사망의 끈’이요, ‘죽음의 끈’이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이 끈을 풀어 준다고 말씀하셨다.

37. <풀어 주고 관리하는 자>는 ‘침단의 지도자’다.

38. <메시아>는 풀어 주고 관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39. <기다리는 자>, 풀어 주고 가면 만사가 편하다.

40. <풀어 주기와 관리>를 못하면, 참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돌포도나무로 끝나버린다.

41. <관리가 안 된 밭>은 ‘잡초밭’이 되듯이, <관리가 안 된 자>

는 ‘가인 인생’ 이 되고 ‘악의 인생’ 이 된다.

42. 구시대 문제 속에 고통을 받는 자가 있느냐. 주가 모두 풀어 주리라.

43. <풀어 주는 것>도 ‘연구’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연구’ 해야 된다.

44. <사랑하는 자> 풀어 주기와 관리하기다. <시대 신부들> 풀어 주기와 관리하기다.

45. <주체>와 <상대>는 서로 풀어 주고 관리해 줘야 된다.

46. <풀어 주기>가 ‘생명’ 이다. <관리>가 ‘생명’ 이다.